

<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판정 이제 하루면 OK! >

- 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중단 위기 극복사례 -

요 약 (FTA 활용)

□ 기업소개

○ SUV 등 RV차량 전문 생산업체 S社

-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모(母)그룹 해체, 법정관리 및 노조파업, 합병, 해외 매각 등을 반복해오다 최근 신차 출시 및 판매 호조로 경영 정상화 노력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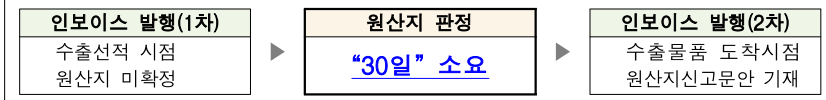
□ FTA 활용(장애요인)

○ 계약상대국(EU)의 반복적인 원산지검증 요청

- (사유) 아일랜드 수입자측에서 한-EU FTA ‘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지 않은’ 상업서류(INVOICE)*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신청

* 원산지판정에 장시간(30일)이 소요되어 수출선적시점에는 非특혜C/O(1차)가 발행되었다가 도착시점(1개월 경과 후)에 특혜C/O(2차)가 발행되는 S社의 현행 원산지관리시스템 한계에 기인

< S社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>



□ FTA 활용(극복과정)

○ 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

- ①원산지판정 소요시간 단축(30일→1일), ②원산지증명서 발급횟수 축소(2회→1회), ③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시물레이션 기능 탑재

<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전·후 비교 >

| 개선 전 | 구분 | 개선 후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30일(月 단위) | 원산지판정시간 | 1일(日 단위) |
| 2회 | C/O발행 건수 | 1회 |
| 수출선적/도착시점 | C/O발행 시점 | 수출선적시점 |

□ FTA 활용 효과

-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수출계약 취소 위기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복
⇒ EU 수출금액 기준 연간 약 2,500억원 수출물량 지속 확보
- 원산지검증 통과에 따른 기업 및 제품 신뢰도 제고로 수출경쟁력 확보
⇒ 對 EU 평균 수출증가율(131%) 반영시 연간 약 3,300억원 규모 매출성장 기대
- 원산지검증 미통과시 부과될 관세비용 절감
⇒ EU 관세율(10%) 고려시 5년 누계기준 약 750억원 추정부담 해소

[분야 : FTA 활용 우수]

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판정, 이제 하루면 OK!

- 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출중단 위기 극복사례 -

1 기업소개

□ SUV 등 RV 전문 생산업체 S社



- S社는 SUV, 지프로 대표되는 RV(Recreational Vehicle) 차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완성차업체 중견기업

-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버스를 생산하는 ○○○자동차제작소로 시작하였고, 1986년 ○○그룹에 인수되면서 국내 대표 SUV, 지프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나,

-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모(母)그룹 해체, 법정관리 및 노조파업, 타사로의 합병, 해외 매각 등을 반복해왔으며,

- 2010년 인도 자동차업체인 마힌드라&마힌드라에 인수되면서 소형 SUV를 중심으로 신차 모델을 꾸준히 출시하는 등 그간의 부진을 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

□ 주요 생산물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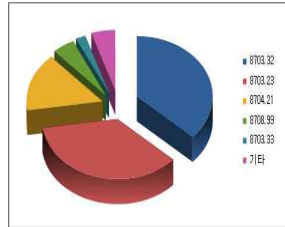
| RV(SUV) | 일반차량 |
|---|---|
|  |  |

□ 최근 5년간 수출실적

- (품목별) 완성차 제조업체의 특성상 전체 수출금액의 90% 이상은 자동차(일반, RV 등)이며,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약 4.7% 차지

| HS | 품목 | 수출금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8703.32 | 실린더용량 1,500cc 초과 2,500cc 이하 | 1,340,900 |
| 8703.23 | 실린더용량 1,500cc 초과 3,000cc 이하 | 1,293,325 |
| 8704.21 | 총중량이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| 565,544 |
| 8708.99 | 차량 부분품과 부속품 | 170,452 |
| 8703.33 | 실린더용량 2,500cc 초과하는 것 | 73,392 |
| 기타 | | 184,851 |
| 합계 | | 3,628,46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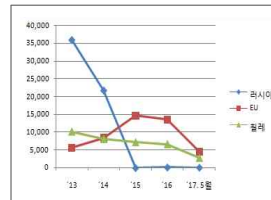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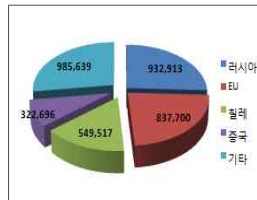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미화 천불)



- (국가별) FTA 미체결 국가인 러시아 수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, 2015년 이후부터는 EU가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

| 국가 | 수출금액 | 비중 |
|-----|-----------|------|
| 러시아 | 932,913 | 26% |
| EU | 837,700 | 23% |
| 칠레 | 549,517 | 15% |
| 중국 | 322,696 | 9% |
| 기타 | 985,639 | 27% |
| 합계 | 3,628,465 | 100% |

(단위 : 미화 천불)



- (FTA 체약 국가별) 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FTA 체약국 수출의 거의 절반(46%)을 차지

(단위 : 미화 천불)

| 협정명 | '12 | '13 | '14 | '15 | '16 | '17. 5월 | 합계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EU | 83,983 | 114,685 | 171,738 | 245,273 | 228,523 | 78,241 | 844,202 |
| 아일랜드 | 943 | 1,793 | 3,220 | 4,736 | 3,350 | 1,255 | 14,042 |
| 칠레 | 130,990 | 158,123 | 129,973 | 110,976 | 104,862 | 45,581 | 634,924 |
| 인도 | 29,247 | 51,932 | 14,388 | 6,506 | 1,642 | 1,482 | 103,715 |
| 터키 | 29,439 | 19,334 | 16,734 | 17,921 | 11,655 | 1,623 | 95,083 |
| 아세안 | 12,740 | 12,989 | 8,117 | 5,343 | 22,357 | 1,515 | 61,546 |
| 기타 | 16,689 | 9,188 | 15,726 | 21,156 | 62,131 | 11,293 | 124,890 |

2 FTA 활용과정

□ FTA 활용시 장애요인

최대 수출시장인 EU 회원국(아일랜드) 관세당국의 **반복적인 원산지검증 요청**
 ⇒ FTA 특혜 적용에 빨간불!!! FTA 체약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중단 위기

- S社가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EU(아일랜드)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(C/O)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 연이어(2회) 요청

-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(C/O)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, 단순히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전체로 검증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

- 최근 러시아 수출 급감이라는 악재 속에서 EU로의 수출까지 타격을 입게 될 경우 S社는 또다시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우려

* S社의 對 EU 자동차 수출액은 2,500억원 이상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23%를 차지

⇒ 평택세관은 아일랜드 수입자측의 단순실수로 부적정한 원산지증명서(C/O)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, 원산지증명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해당 수출물품은 한국산(역내산)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하는 한편, 원산지검증 요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

| 구분 | 검증요청 사유 | 검증결과 및 회신 |
|-------------|---|--|
| 1차 ('16.8) | [아일랜드 수입자] 한-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지 않은 상업서류(INVOICE) 제출 → 한-EU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| [수출자=S社] 원산지신고서 문구가 정상적으로 기재된 상업서류가 1개월 후 추가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 [세관] FTA협정상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사실 및 한국산임을 회신 |
| 2차 ('16.12) | [아일랜드 수입자] 한-EU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상공회의소 발행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출 → 한-EU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| [상공회의소]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임을 확인(공문 회신) [세관]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진본이며, 해당 제품은 한국산임을 회신 |

□ FTA 활용(장애극복과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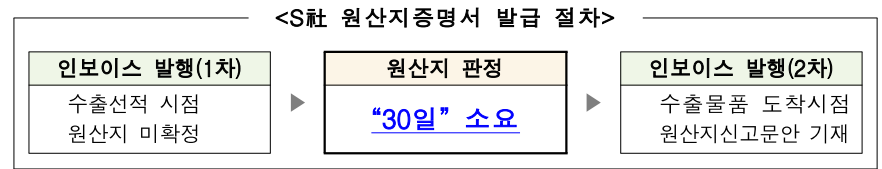
(1단계) 문제인식 반복되는 원산지검증 요청 원인분석

- (실시간<Real-time> 원산지관리시스템 부재) S社는 제품(완성차)의 원가계산 및 원산지판정을 月(30일) 단위로 정산하는 노후화된 방식의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용

- (1차 INVOICE 발행) 따라서 최초 수출선적 시점에는 제품의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신고 문안*이 기재되지 않은 상업서류(INVOICE)가 발행되어 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

* 한-EU FTA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(C/O) 서식을 두지 않고,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 상에 약정된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에 갈음함

- (2차 INVOICE 발행) 1차 INVOICE 발행일로부터 1개월(30일) 경과 후 최종 원산지판정(확정)과 함께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상업서류(INVOICE)가 추가로 발행되어 계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



⇒ 이 과정에서 EU(아일랜드) 수입자의 착오로 수출선적 시점에 발행된 원산지신고 문안이 없는 ‘1차 INVOICE’를 근거로 한-EU 협정관계 적용신청을 한 것이 당해 원산지검증 요청의 가장 결정적 원인

- (협정별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) 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협정별로 상이하며, 1~2만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완성차의 특성상 원산지판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

| HS | 협정 | 원산지 결정기준 | 장애요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|
| 8703.10 ~8703.90 | EU |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%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(MC45) | 협정별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복잡한 원산지 판정 과정 |
| | 칠레 | 공제법 45% 또는 직접법 30%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(BD45 or BU30) | |
| | 인도 |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%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(CTH & RVC40) | |

- (원산지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) 법정관리, 대량 해고 등에 따른 긴축경영으로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없이 세무(Tax) 담당부서에서 원산지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와 전문성 부족

(2단계) 문제해결

민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개선 노력 전개

- (연구동호회 구성) 관내 특화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제조·수출기업의 FTA활용 및 원산지검증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민·관합동 연구동호회 (CoP)인 “**평택세관 FTA 서포터즈**” 신설
 - 세관, 상의(商議), 수출입기업(S社 외) FTA담당자(총 12명)으로 구성하고, 자동차산업분야 FTA활용 및 수출검증 대응방안 중점 연구

- (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) S社에 대한 아일랜드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계기로 EU 전체로의 검증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의(商議)와 합동으로 자동차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

- 관내 대표적 완성차업체인 S社는 물론 부품을 제조·납품하는 협력업체 대부분(40개社)이 참석하는 등 최근 검증 이슈에 관심 집중



- (실무자 협의회 구성·운영) 세관, 상의(商議), 수출입기업(S社 및 협력업체 5개社) 원산지관리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, EU(아일랜드)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한 실질적 대응전략 협의

- 당해 원산지검증의 원인이 원산지판정 소요시간(30일)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‘**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**’ 구축 추진 결정



- (FTA 기동대 활동과 연계) 상반기 평택세관 FTA 기동대 활동 우선순위를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 위주로 편성

-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·관리방안 등 원산지검증 강화 추세를 반영한 ‘**1:1 맞춤 컨설팅**’ 제공

(3단계) 개선방안

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

- (추진방향)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
- (진행경과) 시스템 개발('17.1월~3월)→시험운영('17.4월)→실제운영('17.5월~)
- (추진결과) 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실현
 - 원산지판정 소요시간 : 30일 → **1일**
 - 원산지증명서 발급 : 2회 → **1회**
 - * [종전] 수출선적시점(非특혜C/O) → 도착시점(특혜C/O), [현재] 수출선적시점(특혜C/O)
 - 협정별, 원산지결정기준별 요건 충족 여부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 탑재

<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전·후 비교 >

| 개선 前 | 구분 | 개선 後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30일(月단위) | 원산지판정시간 | 1일(日단위) |
| 2회 | C/O발행 건수 | 1회 |
| 수출선적/도착시점 | C/O발행 시점 | 수출선적시점 |

- (세관역할) 실시간(Real-time)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의 효과와 필요성 제기, 자동차 관련 수출검증 사례 및 착안사항 공유, 판정결과 정확성 여부 점검,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과의 호환성 지원(본청 정보관리과 업무협약), 사전 시뮬레이션 기능 정밀도 점검 등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판정결과 사후점검까지 전영역에 걸쳐 해당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전폭적 지원 제공

< 실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 화면 캡처 >

| 메인화면 | 판정결과 | 판정상세 |
|------|------|------|
| | | |

3

FTA 활용 효과

□ 원산지검증을 수출확대 및 품질인증의 기회로 활용하다~!

- (수출중단 위기 극복) 원산지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으로 자칫 계약상대국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봉착 하였으나, 세관의 컨설팅 및 실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극복

⇒ EU 수출금액 기준 **연간 약 2,500억원** 상당 수출물량 지속 확보

- (수출경쟁력 제고) 실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EU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통과에 따른 기업 및 제품 신뢰도 제고로 수출경쟁력 확보

⇒ 최근 5년간 對 EU **평균 수출증가율(131%)** 반영시 **연간 약 3,300억원** 규모 매출성장 기대

- (관세 절감) 금번 EU(아일랜드)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통과시 부과될 관세비용 절감

⇒ EU 관세율(10%) 고려시 5년 누계기준 **약 750억원** 상당 추정 부담 해소

4

FTA 활용 특징 및 시사점

- 본 건은 한-EU FTA 발효 이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출검증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 중 하나인 완성차에 대한 계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었던 사례로 판단되며,

- 향후 점차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FTA 원산지검증이라는 난제를 세관과 기업의 협업(協業)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고, 오히려 원산지검증을 해당 기업과 제품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FTA활용 모델임

| 분야 | 업체명/세관명 | 제목 | 담당자(업체/세관or관세사) | 연락처 (전화/이메일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FTA활용 우수 | 쌍용자동차(주)/ 평택 |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원 산지 판정, 이제 하루면 OK! | 업체: 노강호 차장 세관: 통관지원과 관세사: 우리회계법인 김동령 | 031-610-1299/ kangho.roh@smotor.com |